

신자들 외에 神을 알자가 없다.⁶⁷⁾

말씀과 聖靈은 自己 百姓들의 靈魂에 永生이 되는 神知識을 囑게 하는 神의 役事의 二要因이 되는 것이다. 말씀의 機能은 靈魂에게 믿을 수 있는 客體가 되는 것이고 이 客體를 믿는 信仰을 靈魂속에 일으키는 것이 聖靈의 機能이다. 어느 편도 다른 편을 일을 하거나 또 다른 편에 상관없이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證據는 陳述的 啓示나 우리속에 盲目的 確信이 생김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本質上 그것은 聖靈의 役事로서 우리의 意識을 主張하여 우리의 本質, 機能등을 變化시켜 우리가 神을 認識하게 되고, 神을 依支하고 사랑하며 神의 말씀을 聖靈의 쓰시는 道具로 使用하여 神을 알게 된다. 이것은 聖靈으로 우리 心靈속에 役事하심으로 온다고 믿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聖靈의 證據라고 한다.⁶⁷⁾

J. I. Packer는 神知識에 있어서 聖靈의 重要性을 다음과 같이 要約한다.⁶⁹⁾

첫째로 聖靈이 없이는 福音도 없고 聖經도 없었을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證據로 살아 보내셨는데(요15:27; 행1:8) 그것을, 理解하거나 전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저희에게 聖靈을 보내어 모든 眞理를 가르치게 하여 저희의 過誤를 免케 하셨다.

“保惠師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聖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14:26) “眞理의 聖靈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眞理 가운데로 인도 하시리니 그가 自意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將來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16:13)

둘째는 聖靈이 없이는 믿음도 重生도 없었을 것이다. 복음의 빛이 비추이고 있으나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昏迷케 하여 그리스도의 榮光의 福音의 光彩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고후4:4)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대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聖靈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3:3, 5)

셋째는 聖靈께서 教會에 머물러 그리스도를 證據케 하셨다. 聖靈께서 使徒들에게는 啓示와 靈感으로 하시되 後代의 모든 이들에게는 聖靈의 照明으로 證據하셔서 눈먼 자의 눈을 떠게하고 靈의 視野를 찾게하여 福音이 참으로 하나님의 眞理이며 聖經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罪人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67) Warfield, Ibid., p. 83

68) 이 敎理를 믿는 칼빈의 후계자들은:

Willia Cunningham, Charles Hodge, Abraham Kuyper Herman Bauinck, Berjamin Warfield등이다.

69) J. I. Packer, Ibid., pp. 61-2

劣等感과 適應

金 龍 燮*

<目 次>

- I. 序 論
 - I-1. 問題의 提起
 - I-2. 研究의 目的과 課題
 - I-3. 研究의 範圍와 限界 및 方法
- II. 劣 等 感
 - II-1. 劣等感의 意味
 - II-2. 劣等感의 原因과 種類
 - II-3. 劣等感의 發生期
- III. 劣等感과 適應
 - III-1. 適應의 意味
 - III-2. 適應의 形態
 - III-3. 劣等感-適應의 力學
 - III-4. 劣等感의 反應樣式과 適應
- IV. 健全한 生을 爲하여-結語
- 參 考 文 獻

I. 序 論

I-1. 問題의 提起

弱肉 强食, 適者 生存의 原理가 支配하는 人間의 生의 樣態가운데 하나는 不斷한 葛藤과 競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社會속에서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 人間은 누구나 이 갈등과 경쟁속에서 살아 남기 爲해, 그리고

*教授, 敎育學

生の 敗北者가 되지 않기 爲해 他人보다 더 낯아지려 하고 더 強해지려 한다. 바꾸어 말하면, 人間은 他人과의 關係에서 그들보다 優越해 지기 爲해 끊임없이 분투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人間은 그가 不斷히 追求하는 優越性 보다는 願치 않는 劣性에 사로잡히기 마련이어서, 이로 因해 自我實現에 挫折을 겪기도 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 劣性を 모면하고 이를 克服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優越해지기 위해 여러 形態의 反應 行動을 하기도 한다. 劣等感은 누구에게나 必然的으로 엄습해 오는 情緒의 一種으로서 그에 依해 人間은 그의 사람됨(personality)의 形成이나 그가 營爲하는 生에 肯定的인, 때로는, 否定的인 影響을 받는 것이 事實이다.

이러한 劣等感を 바로 알고 이에 効果的으로 對應하는 것은 健全한 사람됨의 形成과 바람직한 生の 營爲를 爲해 매우 緊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教育, 특히 基督教教育이 窮極的으로 被教育者에게 健全한 사람됨을 形成케 하고 바람직한 生을 營爲케 할 것을 志向할진데 모든 教育(的 探求)은 이 劣等感에 對한 바른 理解와 이를 바탕으로 한 健全한 適應을 助長하고 增進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어느 意味에서는, 이것이야말로 모든 教育課業이 等閑히 할 수 없는 重要 局面이기도 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I-2. 研究의 目的과 課題

本 研究는 人間의 普遍的 感情의 하나인 劣等感에 對한 本質的 概念을 究明하고, 이 情緒가 作用할 때 나타나는 反應 行動으로서의 適應에 對해 考察할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劣等感이라고 일컬어지는 人間의 特殊 感情은 本質的으로 무엇이고, 이를 發生케 하는 要因은 무엇인가? 그리고 多樣스럽게 發現되는 이 劣等感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또 그것들은 어떠한 形態로 表現되는가? 劣等感이라고 하는 情緒가 個體內에서 作用할 때 그것에의 反應으로 外部에 나타나는 行動인 適應의 意味는 무엇이고, 그 形式은 어떠한가? 劣等感이라고 하는 內的 心理作用의 力學的인 因果概念으로 把握될 수 있는 人間의 外的, 社會的 行動으로서의 適應의 結果 個人에게는 어떠한 變化가 일어나는가? 等의 一般的인 물음에 解答을 얻으려는 것이 本 研究의 課題이다.

人間의 生은, 어느 意味에서는, 不斷한 適應의 過程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그것들을 뛰어 넘고 克服하지 않으면 안 될 허다한 障礙에 부딪치게 되는 것이 事實이다. 劣等感도 이들 障礙들 중 避할 수 없는 하나이다. 個人에게 이러한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 엄습해 올 때 그로 하여금 이를 直視하고 이에 슬기롭게 對應케 하는 것은 健全한 사람됨의 形成, 發達과 바람직한 生の 營爲를 可能케 하는 決定的 要因이요, 모든 教育的 探究와 行爲의 課題이기도 한 것이다. 本 研究는 劣等感和 適應에 對한 究明을 통해 微弱하나마 이러한 課業의 成就에 一助가 될 것을 志向하여 試圖되었다.

I-3. 研究의 範圍와 限界 및 方法

本 研究는 人間의 여러 情緒들 중 劣等感이라고 일컬어지는 特殊 局面과 이것이 作用할 때 나타나는 反應으로서의 適應이라고 하는 行爲 局面에 關心의 境界를 긋고 있다. 劣等感和 連鎖 關係에 있거나 因果 關係에 있는 嫉妬心, 羨望, 憤怒* 등 다른 情緒나 劣等感—適應이라고 하는 生の 力學的 過程을 通해서 이루어지는 personality의 形成 등과 같은 問題는 本 研究의 主題에 對한 철저한 탐구에 있어 必然的으로 擴延해서 檢討되어야 할 連帶 課題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이들은 本 研究의 關心 範圍 밖에 있음을 밝혀 두는 바이다. 이러한 制限된 課題에 關心이 集中될 本 研究는 그 主題가 示唆하는바 人間의 生の 過程에 나타나는 普遍的인 한 局面에 對한 心理學的 究明과 對應을 爲한 하나의 試圖에 不過하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어떠한 課題에 對한 心理學的 解明은 그 性格에 비추어 一般的으로 關聯 領域의 經驗的 事象에 對한 實驗的, 統計的 節次를 通해서 接近해야 할 當爲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本 研究의 關心主題는, 그러나, 이러한 實驗的 狀況에 있어서의 接近을 必須 要件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關聯 文獻들에서 얻은 示唆들을 바탕으로 關心 主題들에 對한 論議를 通해서 問題들에의 解答을 求하려는 것이 本 研究의 意圖하는 바임을 밝혀 두는 바이다.

한 가지 附言하고자 하는 것은 本 研究의 性格에 對해서 이다. 本 研究는 主題와 關聯된 先行 研究의 成果에 對한(事實 本 研究의 主題나 이와 類似한 問題에 對한 集中的, 體系的 探究의 成果가 稀少하기도 하지만) 客觀的 紹介나 擴延, 展開를 위한 單純한 記述的 論議에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主題에 含蓄된 人間의 固有하고도 普遍的인 生の 問題에 어떻게 適切하고 바람직스럽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對한 規範的 當爲性을 探索하는데 力點을 두었다. 이러한 脈絡의 緣由로 本 研究에는 問題를 해명하고 전개함에 있어 普遍的 共感이 모아질 論者의 見解가 多分히 示唆되고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II. 劣 等 感

II-1. 劣等感의 意味

劣等感이란 말은 Inferiority Feeling이란 英語의 譯語로서 “自身을 낮추어 輕蔑하는 感情 또는 卑劣感”(이승녕, 1981, p. 860)을 意味한다. 劣等感を 意味하는 Inferiority Feeling이란 英語에서 名詞 Inferiority는 라틴어 Inferioritas란 名詞에서 온 말로서

*金龍燮, 1984, “憤怒에 對한 研究”, 高神大 教授論文集 第12輯, 高神大出版部, p. 71-90.

이는 inferior란 形容詞의 比較級이 名詞化한 것인바, inferior의 原型은 inferus이다. Inferus는 Low 또는 Below라고 하는 意味를 가진 形容詞로서 이 말은 空間의 位置에 있어서 下部; 順序, 序列에 있어서 下位; 質, 價値 等에 있어서 弱함과 低劣함을 意味하는 말이다. 이러한 意味를 가진 原語 名詞의 英譯 名詞인 inferiority에 感情을 意味하는 feeling이 합쳐진 英語와, 이의 譯語인 劣等感이란 漢字語는, 그 語義에 비추어, 個人이 自身の 心, 身 諸 局面에 걸쳐 스스로를 ...보다 낮고, ...보다 下位이고, ...보다 弱하고, ...보다 低劣하게 여기며 自身을 낮추어 輕蔑하는 感情을 말한다.

누구에게나 作用하는 普遍的 人間感情인 劣等感은 반듯이 個人의 社會生活에서 나타나는 心理的 現象이라는 것이 特徵이다. 卽, 이 劣等感은 個人이 孤立되어 있는 限에는 그에게 나타날 수 없고 반듯이 社會生活의 渦中에서 他人과 自身이 比較될 때 發生하는 것이다. “劣等感은 個人이 그가 屬해 있는 社會集團에 依해 이루어지는 評價와 自己 自身の 特質을 독자적으로 느끼는 方法에 依해 發生하며 個人과 社會집단의 評價의 關係에서 나타나는 相對的 意味를 가진 것이다.”(高木四郎, 中野佐三, 1969, p. 32). 劣等感은 自身과 他人과를 比較하므로 始作되는 것으로서 意識의 으로 또는 無意識의 으로 他人과 自身과의 사이에 있는 相違點을 느낄 때 생기는 感情”(Ibid., p. 71)인 바, “自己의 劣性, 缺陷에 對한 感情的 反應을 일컫는다.”(金誠一 外 4 人, 1972, p. 342). 記述概念으로서의 劣等感은 不安한 느낌, 失敗에 對한 恐怖, 無力感, 自信의 缺如感, 嫉妬, 羨望, 아니끄움 等에 共通되는 感情을 가르키며; 說明概念으로서의 劣等感은 現實의 課題에 當面하여 恒常 不安, 恐怖, 迴避 等の 態度를 보이고, 지나친 辭讓, 압박, 주저 等에서 退嬰의 反應을 보이거나, 또는 께 까다로움, 심술, 억측, 반항, 교만, 오만, 等, 그 밖에 防禦的, 攻擊的 反應을 보이는 境遇에 있어서 그러한 態度, 行動을 說明하는 基本概念으로 쓰인다(Ibid.).

劣等感은 個人에게 基本的 要求가 充足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緊張(tension)의 한 形態로도 볼 수 있는바, 이러한 緊張이 發生했을 때 個人의 反應 行動의 結果는 이의 補償, 만회의 추구와 關聯하여 個人의 自我伸張, 能力增進 等 肯定的인 힘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甚한 挫折感과 自我卑下感(self-depreciation), 자포자기, 社會적 은둔(withdrawal), 孤立, 逃避 等の 形態로 나타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不當한 攻擊行動 等 否定的 形態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劣等感을 肯定的인 意味로 보고 사람의 사람됨(personality)의 形成과 關聯하여 이에 큰 意味를 賦與한 것은 Alfred Adler이었다. Adler는 優越感和 아울러 이 劣等感의 問題를 自身の 個人心理學(Individual Psychology, Hall & Lindzey, 1978, p. 157-158)의 基本 契機로 삼았다. Freud의 門下生인 그는 人間의 모든 生과 行動을 性的 衝動性과 이를 充足하는 過程으로 보고 說明한 스승의 見解에 反對하고, 그 代身 優越性 爭取(strife for superiority)라고 하는 生得的 欲求를 人間의 모든 生과 行動의 原動力으로 보았다. 그에 依하면 人間은 누구나 自身の 身體 各 器官의 缺陷이나 不完全 等 生理的 劣性에

對한 自覺에서 비롯되는 劣等感을 비롯해서 精神機能이나 社會關係에서 나타나는 諸般 劣性에 對한 自覺에서 오는 劣等感을 지니고 있는바, 이러한 劣等感을 克服하고 補償하여 優越性을 追求하려는 爭鬪(strife)의 樣相이 個人의 獨特한 personality와 生의 樣態(style of life)를 決定한다고 한다(Ibid., pp. 159, 162). Adler에 依하면 劣等感을 克服하고 優越性을 爭取하려는 欲望은 生得的인 것으로서 生의 한 部分이요, 事實上 生 그 自體인바, 이는 태어나면서 부터 죽을 때 까지 全 發達段階에 걸쳐 個人의 personality를 規定하고 그의 生과 行動을 左右하는 原動力이라 한다. Adler의 다음 말에는 이러한 그의 生覺이 잘 表明되어 있다:

“I began to see clearly in every psychological phenomenon the striving for superiority. It runs parallel to physical growth and is an intrinsic necessity of life itself. It lies at the root of all solutions of life's problems and is manifested in the way in which we met these problems.”(Adler, 1930, p. 398)

II-2. 劣等感의 原因과 種類

劣等感은 個人이 自身の 身體的 缺陷이나 異常 狀態를 비롯해서 精神的, 社會的 無能力을 主體的으로 意識할 때 나타나는 人間 固有의 情緒이다. 自身の 外貌, 身體의 機能, 知的, 情緒的, 性格의 特性和 能力, 社會一經濟的 地位 및 所屬 性別에 따른 役割 等에 있어서의 他人과의 比較에서 自身에게 缺陷, 障礙, 低劣, 弱點 等이 있음을 自覺할 때 오는 一種의 自我卑下感, 自我輕蔑感이 劣等感이다. 劣等感이 發生하는 源泉은 個人의 어떠한 局面에 있는 劣性이요, 이 劣性에 對한 主體的 意識이다. 이 劣性自覺은 個人 自身이 지니고 있는 客觀的인 劣性和 반듯이 相應一正比例하는 것은 아니다. 뚜렷한 客觀的 劣性을 지니고 있는데도 그것이 本人에 依해 意識되지 않을 때(못 할 때)에는 그 個人에게는 劣等感이라고 하는 主觀的 情緒가 作用치 않는다. 假令, 精神 遲滯兒를 例로 들어 보자. 그는 知的 能力面에서 볼 때 分明히 劣性을 지닌 劣等兒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大部分의 境遇 精神障礙者는 自身の 知的 劣性에 對해 自覺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知的)劣等感이 생기는 경우는 極히 드물다. 或 생기더라도 그것은 그 強度나 持續性에 있어서 別로 注目할 만한 것이 못된다. 이와는 反對로, 自己보다 우월한 他人과 比較해서 自身이 지니고 있는 客觀的 劣性은 근소한데도 그의 劣性自覺은 이에 相應치 않게 아주 強하여 甚한 劣等感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個人이 實現코자 하는 自我像과 現實의 自我像과의 乖離나 그의 要求水準과 成就水準과의 不調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劣等感은 生의 過程에 있어서의 여러 狀況에 따라 그때 그때 體驗되더라도 멀지 않아 그것이 解消되는 경우도 있고, 이와는 對照的으로, 類似한 狀況下에서 나타나는 自身の 劣性에 對한 體驗과 自覺이 되풀이 되어짐에 따라

이 劣性意識이 固定化되어 이것이 그의 心的 作用이나 反應에 하나의 強壓 要因으로 작용하는 境遇가 있다. 이러한 形의 劣等感を 劣等콤플렉스(inferiority complex)라 하는바 이는 個人的 精神衛生에 커다란 影響을 끼치는 것으로서, 等閑히 할 수 없는 臨床心理的인 關心事인 것이다.

劣等감이 作用할 때 그것이 個人에게 끼치는 影響의 強度나 持續性에는 劣性에 對한 個人的 自覺의 深度나 그 劣性を 意識하는 個人的 사람됨(personality)에 따라 많은 差異가 있다. 例컨데, 個人에게 劣性を 일으키는 客觀的 劣性 要因에 대한 自覺이 그 個人的 人格의 한 領域에만 머물러 있고 그 中核을 이루는 깊은 內的 自我에 까지 關係되는 일이 比較的 弱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反對로, 個人的 一部 局部的 領域에 나타난 하찮은 劣性에 對한 自覺이 當場 그의 깊은 自我까지 송두리채 흔들어 自我 全體에 對한 全人的 價値低落으로 느껴지고, 單純한 局部的 劣性에 對한 自覺으로서의 劣等감이 아닌 自身の 全存在的 劣等感으로 심각하게 體驗되는 일이 있다. 個人에게 이러한 劣等감이 作用하게 되면 그의 意志나 價値體制는 根底에서 부터 흔들려 個人的 生, 行動은 말할 것 없고 그가 參與하는 集團生活에도 커다란 衝擊이 波及된다. 劣性の 自覺이 單純히 一部 身體器官이나 局部的 機能의 劣性으로만 自覺될 때에는 문제는 비교적 簡單하지만, 이 劣性の 自覺속에 他人과의 比較 意識이 強하게 作用하여 自身の 劣性때문에 自我實現欲이나 自我成就에의 挫折을 느끼게 되고, 다시 그로 因해 愛情에 對한 要求, 所屬의 要求, 社會的 承認의 要求 등 人間的 基本的 要求의 充足이 阻害되었다는 意識이 作用하여 여기에 融合할 때에는 尋常치 않은 印象심리학적인 문제가 惹起되는 것이다.

劣等感은 個人 自身이 屬해 있는 性別에 對한 意識에서도 發生하는 것으로 生覺되어 지기도 한다. 이는 女性에게서 볼 수 있는 心理的 作用으로서 Freud에 依해 이러한 見解가 表明된 바 있다. 그에 依하면 女兒들은 3歲—5歲頃에 이르면 自身에게 또래의 男兒에게서 볼 수 있는 外顯的 性器가 없음에 劣等感を 느끼고, 이에서 오는 反射的 心理作用에 따라 自身과 性이 다른(性器를 가진) 아버지에게 關心이 이끌려 情을 기우리게 되며, 아버지를 包含한 男子에게(男子의 性器에 對해) 妙한 羨望感이 作用한다고 한다. Freud는 이를 女子(兒)의 男性性器羨望(penis envy)이라고 일컫고 있는 바, 그는 이를 女性(兒)의 劣性自覺으로서의 劣等意識과 함께 女兒(子)에게 나타나는 Electra Complex 心理現象과 關聯해서 論하고 있다(Dicaprio, 1974, p. 44; Hall & Liudzey, 1978, p. 57).

II-3. 劣等感의 發生期

人間的 普遍的 情緒 가운데 하나인 劣等感은 다른 情緒가 그러하듯 生得的인 心理現

象*으로서, Adler에 依하면, 이 劣等感を 克服하고 優越性を 爭取하려는 要求는 母胎에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一生동안 個人에게 持續되는 것이라 한다(Hall & Lindzey, 1978, p. 162). 그러나 劣等感이라고 하는 心理現象이 個人的 主體的 自覺으로 그의 行動과 生의 現實에 나타나 具體的으로 作用하여 어떠한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은 個人에게 他人과의 社會的 關係가 形成되어 人間交涉이 이루어지고 이 속에서 展開되는 他人과의 比較작용속에서 自身을 主體的으로 意識할 수 있는 時期를 지나서의 일로 生覺된다. 人間은 누구나 母胎에서 태어나면서 부터 어머니와의 사이에 形成되는 原初的 關係를 비롯해서 他人과의 사이에서 끊을 수 없는 社會的 關係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存在이다. 그러나 個人이 自己를 意識하고, 自己와 關係하는 他人을 意識하고, 또 他人과의 比較關係를 意識하고, 여기에서 다시 自身の 客觀的 劣性を 意識할 수 있는 時期는 아무리 해도 人間的 意識作用이 言語의 形態로 表現되고, 이를 바탕으로 人間的 社會的 關係가 始作되는 時期로 보아야 할 것이다. 發達段階에서 이러한 現象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大概 1歲 半부터 3歲頃까지나 또는 이 時期를 經過한 時期로 볼 수 있다. 이때 幼兒에게는 步行이 可能해짐으로써 行動空間이 넓혀짐에 따라 他人과의 사이에 初步的인 社會關係가 形成되고, 言語의 發達로 相互作用(interaction)이 이루어져 意識的 交涉(communication)을 통한 人間關係가 펼쳐짐으로써 他人과의 關係에서 自身을 意識하게 된다. 이 過程에서 그는 自身보다 힘세고, 自身을 움직이는 父母나 다른 年長者 및 또래와의 關係에서 自身の 無力感, 依存性, 低劣性 등을 깨닫게 됨에 따라 一種의 原初的 形態의 劣等感現象을 보이기 始作한다. 이 期間에 分化해서 나타나게 되는 嫉妬心이나 羨望의 情緒(Bridges, 1932, p. 324~341)와 3歲頃에서 5歲頃 사이에 나타나게 되는 反抗現象은 이러한 情緒의 連鎖作用 또는 反作用으로 나타나는 心理狀態로 볼 수 있다. 그러나 自身の 劣性を 主體的으로 意識하고 自己卑下感을 일으켜 이의 反應으로서의 積極的 補償行動 등을 통해 自身の 劣性を 克服하고 優越性を 추구하려 하거나, 反對로, 自身の 劣性에 對해 諦念하고 자포자기하여 現實逃避를 꾀하거나, 不當한 攻擊行動을 取하는 등 意圖的, 主體的 自覺反應을 일으키게 하는 참된 意味에 있어서의 劣等感은 主體的 自我意識과 價値觀이 確立되어 自身을 진지하게 評價하기 始作하는 兒童期 後半(10歲 以後)이나 青年期(思春期—12, 3, 4歲 以後)에 이르러 비로서 個人에게 作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Cole & Hall, 1964, p. 313 참조).

*이러한 見解는 例컨데, Darwin(1955, p.350~351), Dennis & Dennis(1951, p.109), Bridges (1932, p.324~341) 등에 依해 表明된 바 있다. 이와 反對로 Watson(1919) 같은 環境論者는 모든 情緒는 經驗과 學習에 依해 일어나고 分化, 發達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Johnson, R. C., & Medinnus, G. R., 1969. p. 98~108 참조

III. 劣等感과 適應

III-1. 適應의 意味

適應(Adjustment)의 問題는 두 가지 側面에서 論議할 수 있다. 그것은 生理的 側面에 있어서의 適應과 心理的 또는 人格的 側面에 있어서의 適應이다. 生理的 側面의 適應이란 人間(有機體)이 基本的 要求(basic needs) 中 第一次的 要求 또는 生理的, 有機的 要求(primary needs or physiological, organic needs)를 充足해 가면서(充足이 안되어 緊張이 생겼을 때에는 이 緊張을 解消해 가면서) 生理的인 諸 機能들에 平衡狀態를 維持해 줌으로써 調和와 均衡이 잡힌 健康한 生을 營爲해 가는 狀態를 말한다. 한편, 心理的, 人格的 適應이란 個人이 基本的 要求의 第二次的 또는 人格的 要求(secondary needs or personality needs)인 自我的 要求(ego needs)와 社會的 要求(social needs)를 充足해 가면서 自我 自身에 對해서와, 社會的 關係에서 緊張, 葛藤, 挫折, 等 없이 (이들을 克服하고 해소하면서) 健全하게 살아가는 狀態를 말한다.

本 研究의 主題에서 問題되는 適應은 後者의 範疇에 屬하는 것임은 말 할 것도 없다. 그 까닭은, 劣等感이라고 하는 情緒가 作用하는 것은 비록 個人의 生理的(身體的) 要因의 客觀的인 劣性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個人에게 主體的으로 意識되어 心理的 作用으로 表現되지 않는 限, 그리고, 人格價値에 影響을 주지 않는 限, 그 自體만으로는 全여 問題가 되지 않기 때문이요, 이러한 生理的 劣性은 말할 것 없고, 尙차, 自我의 內的(非生理的), 精神의 劣性이나 對人關係에 있어서의 社會的 劣性이 個人에게 自覺되어 劣等感으로 作用하는 것은 그것들이 自身의 人格價値에 對한 自覺에서와, 他人과 比較되는 社會的 關係(social context)에서 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發生하고 作用하는 劣等感에서 비롯되는 反應行動으로 이루어지는 適應은 本質上 그것이 間接的으로 波及되는 窮極的 效果라고 하는 次元을 除外하고는 生理的 形態로는 作用치 않는다. 이말을 劣等感에서 비롯되는 生理的(變化)現象과 混同해서는 안 된다. 劣等感은 自身의 어떠한 身體的 精神的 要素에 對한 他人과의 比較的 상황에 있어서의 劣性自覺에 基因되는 것이므로 이의 反應行動으로서의 適應은 必然的으로 他人과의 關係에서 形成되는 社會的 狀況(social context)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요, 또 그것이 或 他人에게 미치는 影響이 없는 自身만을 對象으로 하는 自虐的, 內罰的 性格의 反應이라 할지라도 이 亦是 그 作用誘因이 個人의 客觀化된 自身에 對한 意識이나 他人에 對한 意識이 作用하는 社會的 力學關係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適應은 이러한 社會的 狀況을 벗어나서는 問題되지 않는다. 劣等感에서 비롯되는 反應으로 이루어지는 適應의 意味는 이러한 脈絡에서 究明되어야 할 것이다.

適應이란 말은 個人과 環境(人的, 物的, 社會的)과의 關係를 나타내는 概念으로서 一義的으로 定義하기는 어렵다. 個人이 對人關係나 社會의 秩序속에서 適切하고 조화 있는 行動을 할 때 그 行動이 正常的인 社會生活일 뿐 아니라 個人 自身の 發達에도 바람직스러운 경우 이러한 個人의 生의 狀態를 適應이라 할 수 있다. 卽, 適應이란 個人의 要求를 充足하는 行動이 社會에 無理없이 받아 드려짐과 同時에 社會로 부터의 要請에 對해 個人이 無理없이 圓滿하게 順應해 가는 狀態를 말한다. 이 때 個人과 社會와의 사이에는 不均衡이나 不安 등의 긴장이 없이 調和 있는 平溫關係가 유지된다. 이러한 狀態는 personality의 適應으로 把握할 수 있다(門司三省, 1971, p. 240). 따라서 個人의 要求充足을 爲해 社會의 平衡狀態에 불균형이 생겨도 안되지만 社會의 安寧, 福祉의 實現을 위해 個人에게 무리스러운 緊張이 招來되어도 안된다. 適應하고 있는 個人의 personality는 調和와 均衡이 갖추어진 健全함으로 特徵지워 지고 이러한 個人을 수용하고 있는 社會는 均衡狀態가 보장된 安寧, 福祉로 特徵지워지며, 個人과 社會사이에 緊張이나 갈등이 없는 調和, 安定, 平溫이 支配하게 된다. 이러한 意味의 適應은 決코 個人의 對人關係나 社會生活에 있어서의 盲目的, 機械的인 順應을 爲한 動物的 衝動反應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個人의 人格的이고 自覺的인 反應으로서의 行動을 基礎로 해서 個人의 適應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III-2. 適應의 形態

무릇, 一般的 意味에 있어서의, 人間의 適應은 行動의 力學的 關係에서만 生覺할 수 있는 現象이요 過程이다. 行動을 떠나서는 適應이란 있을 수도 없고 論議할 수도 없다. 適應은 반듯이 人間의 行動과의 關係에서만 問題가 되는 것이다.

人間의 行動은 그의 生得的인 基本的 要求(basic needs)를 充足하기 爲한 反應에서, 그리고 反應의 形態로, 일어난다. 그의 充足이 없이는 生存 그 自體나 種族의 保存, 繁殖이 不可能한 第一次的 要求인 生理的, 有機的 要求(primary needs or physiological, organic needs)와 그것의 充足을 통해서 人間다운 生이 可能하게 되는 第二次的, 人格的 要求(secondary or personality needs)인 自我的 要求(ego needs)나 社會的 要求(sociological needs) 등의 基本的 要求는 그것이 充足되지 않을 경우엔 人間에게는 이에 따른 緊張(tension)이 생기게 되고 이 緊張解消(tension reduction)를 爲해 個人은 어떠한 反應(行動)을 하게 된다. 이때 要求를 充足시켜 긴장을 해소케 하는 反應— 行動을 이끄는 誘因이 하나일 때나, 둘 以上일 경우에도 그 중 하나가 다른 것들 보다 越等하게 強할 때에는 個人의 反應은 單純해 짐으로써 그에 依해 緊張은 바로 解消(要求는 充足)된다. 그러나 複數인 誘因의 強度가 서로 對等할 경우에는 效果的인 要求充足行動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個人에게는 混亂이 오고 緊張은 그대로 남게 된다. 이러한 狀態를 葛藤(conflict)이라 한다. 이러한 갈등상태와 아울러 內的, 外的,

諸 要人에 依해 要求充足이 阻止되면 個人은 甚한 挫折에 빠지게 되는바 이를 要求 阻止(또는 欲求阻止, 欲求不滿, 要求不滿—frustration)라 하며, 이러한 狀態에 處해 있는 限 緊張은 解消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거나 繼續 蓄積되어 더욱 增大된다. 이러한 狀態속에서 個人의 健全한 personality의 形成, 發達이나 生의 營爲는 不可能하다. 適應의 問題가 擡頭되는 것은 이와 같은 狀況에서이다. 生理的으로, 人格的, 社會的으로 frustration에 빠져 緊張상태가 계속되면 個人은 이를 謀免하거나 克服하기 爲해 多樣스러운 反應(行動)을 한다. 이러한 反應에는, 例컨데, 人格的, 社會的 關係에 있어서의 frustration의 境遇, 自己는 언제나 옳고 穩全하다고 生覺하며 要求阻止의 原因이나 責任을 모두 他人이나 外部에 돌려 그에게 非難, 反抗, 無視, 攻擊 等の 言動을 加하게 되는 他虐的 反應(sadistic response) 또는 外罰的 反應만을 보이는 境遇가 있고, 이와는 對照的으로 自身은 恒常 옳지 않거나 不足하다고 여겨 要求阻止—緊張의 原因이나 責任을 全的으로 自身에게 돌려 苛責하는 自虐的 反應(masochistic response) 또는 內罰的 反應이 있는가 하면, frustration의 原因이나 責任을 外部로나 內部로 돌리는 일 없이 언제나 自身의 要求를 抑制하려고 하는 이른바 非虐的, 非罰的 反應(non-punishing response) 등이 있다(Ibid., p. 240).*

이 세 形態의 反應은 極端的인 例이다. 一般的으로 frustration에 빠지면 個人은 이들이 多少 중첩되거나 交錯된 反應을 함으로써 緊張狀態를 解消하여 適應한다. 要求阻止로 緊張狀態가 조성되고 高潮되면 個人은 어떠한 反應을 하게 마련인데 그의 反應은 上述한 形態와 함께 다음의 諸 形態로 나타난다.

適應機制(adjustment mechanism)라고 불리워지는 反應形態에는 自己逃避形 反應과 自己防禦形 反應 및 攻擊形 反應이 있다. 自己逃避의 適應機制(escape mechanism)는 긴장에 사로잡힌 個人이 frustration의 場面에서 逃避하는 것이 特徵이며, 現實的으로 掩襲해 오는 問題는 何等 積極的, 意慾的인 解決이 없이 問題 그 自體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그러나, 一時的이나마 frustration으로 因한 不快, 不滿의 緊張狀態에서 벗어나 一旦 精神의 安定과 平衡상태를 되 찾을 수 있게 된다. 逃避機制에는 孤立(insulation), 拒否(negativism), 退行(regression), 抑壓(repression), 白日夢(day dreaming), 忘却과 沒頭(forgetting and absorption) 등이 있다. 興味로운 것은, 門司三省은 疾病과 죽음(disease and death)까지도 이 逃避機制에 包含시키고 있다는 事實이다(Ibid., p. 229).

緊張解消를 爲한 消極的 反應인 이 逃避機制는 다른 適應機制와 함께 一時的이나마 어느 程度는 自己 救濟의 役割은 하지만 이것이 자주, 그리고, 지나치게 利用될 경우에는 個人의 personality에는 歪曲이 생겨 健全한 適應을 阻害하게 된다.

自己防禦機制(self-defense mechanism)는 逃避機制와는 달리 frustration을 일으키

*Rosenzweig는 他虐的反應을 外罰的反應으로 自虐的反應을 內罰的反應으로 非虐的反應을 非罰的反應으로 各各 부르고 있다(1944, Ch. XI; 高木四郎, 中野佐三, 1969, p. 44~45참조).

는 要因이나 場面に 直面하여 어느 程度 積極적으로 對應하려는 反應이라는데 特徵이 있다. 卽, frustration을 멀리하고 그로 부터 逃避할 뿐아니라, frustration의 緊張으로 因한 不安, 不滿足 등으로 부터 自身을 지켜 確保하려는 多少 積極的 力動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 이 機制이다. 여기에 屬하는 主要한 것들로는 代償(substitution), 補償(compensation), 注意獲得(attention getting), 合理化(rationalization), 同一視(identification), 昇華(sublimation), 投財(projection) 等の 適應機制들을 들 수 있다.

攻擊機制(aggression mechanism)는 個人이 要求阻止 狀態에 直面했을 때 緊張解消를 阻止하는 것으로 生覺되는 사람이나 事物에 對해 積極的으로 反應하여 그에게 攻擊이나 反抗 等の 言動을 함으로써 緊張으로 因한 不快, 不安, 不滿足 등을 解消하려는 反應形式이다. 이 攻擊機制는 frustration에 빠진 個人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바람직스럽지 못한 反應으로서 그에게 一時的으로 緊張을 解消해 주기는 하나 要求充足을 防禦하고 阻止시키는 對象에 對한 攻擊이 困難하게 되면 緊張은 한 層더 高潮 되어 不安스럽고 非正常的인 心理狀態는 계속 남아 있게 되며 그 結果 不適應行動을 버리지 못하게 한다.

一般的으로, 要求阻止로 因한 緊張狀態(逆으로, 緊張으로 因한 要求阻止狀態)가 造成되고 高潮됨에 따라 이를 解消하려는 反應으로 나타나는 上述한 外罰(他虐)的 反應, 內罰(自虐)的 反應, 非罰(虐)的 反應이나 逃避, 自己防禦, 攻擊 等の 適應機制는 願치 않는 難境을 直視하고 克服, 解消하여 健全한 사람(person)으로 發達하면서 바람직한 生을 營爲케 하는 適應의 樣式으로는 適切한 것이 못된다. 特히, 逃避機制와 自己防禦機制 및 攻擊機制는 大部分의 경우 無意識的으로 作用하는 것으로서 여기엔 깊은 思考나 觀照가 介在하는 일이 드물고, 따라서 非合理性이 강한 것이 特徵이다. 이들 反應이 지나치게 반복되어 累積되면 personality는 비뚤어지기 마련이어서 不適應상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frustration에 빠졌을 때 個人이 取할 수 있는 反應形態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우선, 個人은 自身을 客觀化하여 自身의 사람됨과 能力 및 社會, 經濟的인 地位 等の 客觀的 現實과 限界를 直視하고 이를 正確히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要求阻止를 일으키는 周邊의 人的, 物的, 社會的 要因들을 바르게 把握 認識하고 이것이 自身과의 사이에서 作用하는 力動的 因果關係를 規明해야 한다. 그리하여 frustration의 原因과 責任이 다른 사람이나 事物에 있어 보인다면 하더라도 無條件 그에게 批判的, 反抗的, 攻擊的 反應으로 對處해서는 안된다. 劣性에 起因한 劣等感에서 오는 要求阻止는 말할 것 없고, 大部分의 경우 frustration은 個人의 社會的 關係에서 비롯되는 것이요, 自身의 사람됨의 缺陷이나, 能力의 限界性이나 社會關係 營爲의 未熟 등 自我要因에 依해 發生하는 것임을 알고 이에 부합하도록 對應하여야 한다. Frustration의 原因과 責

任이 自身에게 있는 것으로 判斷될 경우라 할지라도 無條件 自身을 비웃고, 卑下하고, 隱遁, 孤立하고 諦念하는 등의 反應은 嚴存하는 frustration 狀態를 抑制하고 없는 듯이 隱蔽하려는 反應못지 않게 健全한 適應이 되지 못한다. 要求阻止의 狀態가 造成되면 個人은 이를 있는 그대로 直視하고 이러한 狀態가 조성된 自我的 要因 및 外的, 周邊的 要因들의 客觀的 現實과 緊張發生 사이의 因果關係를 밝혀 이에 一時的 感情의 衝動性에 呼訴하지 말고 높은 知性和 信仰을 통한 雅量과 忍耐로 이를 克服하여야 할 것이다. 逃避機制나 自己防禦機制 및 攻擊機制的 發動을 통한 間接的이고 否定的이고 非理性的인 反應에 依存한 問題事態의 一時的 緩和나 解消와는 달리 直接的이고 積極的이고 肯定的인 次元높은 이러한 反應을 통해 frustration은 克服, 解消되고, 이에 따라 健全한 사람됨의 形成, 發達과 바람직한 生의 營爲는 가능한 것이다. 올바른 適應을 可能케 하는 이러한 次元높은 自我的 全人格의 動力을 要求阻止忍耐力(frustration tolerance)이라 한다(門司三省, Ibid., p. 235). 이러한 形式의 反應이야말로 우리에게 現實生活의 渦中에서 누구에게나 不時에 엄습해 오는 frustration의 難境에서 슬기롭게 이를 克服해 가면서 不適應을 막고 安定되고 調和로운 삶을 可能케 해주는 次元높은 適應의 形態인 것이다.

III-3. 劣等感 - 適應의 力學

本 研究의 主題에 對한 接近 節次의 하나로 우리는 얼마동안 適應의 問題에 對해 生 覺해 보았다. 劣等感이라고 하는 人間의 情緒가 發生, 作用하게 되면 個人에게는 緊張이 생겨 이를 解消하기 爲한 反應이 多樣스럽게 나타난다. 이러한 反應의 結果 個人은 劣等感으로 말미암은 緊張을 어떠한 水準이든 緩和하거나 解消하거나 하면서 現實의 生의 渦中에서 自我를 實現하고 뜻을 成就하면서, 그리고, 他人이나 事物과의 葛藤을 克服하면서, 다시 말하면, 適切하게 適應을 해 가면서 調和롭고 健全하게 살아 간다. 이러한 脈絡에서 本 研究 主題에의 必然的인 接近 節次로서 劣等感(으로 因한 緊張)을 克服하고 解消케 하는 適應 그 自體의 問題가 論究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劣性 自覺에서 비롯되는 劣等感이 發生, 作用하여 適應의 段階로 移行되는 力學的 過程을 더듬어 보고, 이어서 다음 節에서는, 이러한 力學的 特性을 지닌 劣等感의 表現 形式과 이에 副應하는 適應의 樣相과 過程에 對해 考察해 보고자 한다. 論議 展開에 있어 이미 言及된 局面에 對해서는 極히 必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重論을 避할 것이다.

適應으로의 力學的 移行을 必然的 特徵으로 하는 劣等感이 發生하는 原初的 段階는 個人에 있어서의 劣性의 存在 또는 發生이다. 이 劣性은 先天的, 生得的인 것도 있고, 後天的, 經驗的으로 獲得된 것도 있으며, 生理的인 것도 있고 精神的인 것도 그리고 社會的인 것도 있는가 하면, 이 모두가 중첩된 것도 있다. 外貌를 비롯해서, 心, 身, 社會的 諸 機能에 缺陷, 異常, 障礙 등이 있거나 發生했을 경우의 상태가 劣性이다.

假令, 體軀가 矮小하다거나, 外貌가 醜하다거나 知能이 낮고 情緒에 장애가 있다거나 社會關係 營爲에 未熟하다거나 하는 劣性이 그것이다. 劣性은 個人 自體에 關한 이러한 것도 있고, 또한 그 個人이 屬한 家族이나 集團 및 그 個人과 關係되는 人的, 物的, 諸 要因과 連繫되는 것도 있다. 假令, 個人的 父母나 家族의 社會, 經濟的 地位가 卑賤하거나 自身이 屬한 集團이나 所有物이 低劣하고 보잘 것 없는 경우 등, 이 또한 個人으로 하여금 自身の 劣性으로 意識케 하는 要因들인 것이다.

劣性은 그 自體만으로는 問題가 안된다. 個人에게 劣等感이라고 하는 情緒를 일으켜 그의 價値體制와 行動에 影響을 주어 personality의 適應의 問題로 關心을 끌게 되는 것은 그것이 個人에게 自身の 劣性으로 意識될 때이다. 태어나면서부터 一生동안 個人에게서 떠나지 않는 劣性이 아무리 뚜렷하고 큰 것으로 보일지라도 個人에게 그것이 別로 意識되지 않을 때에는 問題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例는 個人이 높은 知性이나 意志力 등으로 그것을 超越하거나 克服하는 경우, 精神障害나 精神麻醉(알콜, 麻藥 등으로 因한)로 自身の 客觀的 現實에 對한 主體的 意識이 不可能한 경우, 長期間 그것에 露出되어 있음으로써 그것이 意識에서 사라져 예사로와 지는 境遇 등에서 볼 수 있다.

個人이 지닌 客觀的 劣性和 이에 對한 그의 主體的 意識은 반듯이 正比例하는 것은 아니다. 心, 身, 社會的인 어떠한 局部的 劣性이 客觀的으로는 極히 輕微한데도 그것을 問題로 하는 個人에 따라서는 自身の 價値體制와 行動體制를 송두리체 혼들어 놓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反對로, 客觀的인 劣性이 甚대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것을 안고 있는 個人에게는 全然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反應意識은 個人的 personality의 屬性, 意識構造, 生活經驗 등 複雜한 要因들에 依해 多樣하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劣性에 對한 意識은 個人的 期待 - 要求水準에 따라서도 다르게 作用한다. 自身이 期待하는 理想的 自我와 現實의 自我와의 關係, 自身の 要求(期待)水準과 成就水準과의 關係 등이 客觀的 劣性和 이에 對한 主體的 意識의 力動的 因果關係(dynamic causality)를 決定짓는 要因이다.

어떠한 水準에서 이든 劣性이 主體的으로 意識된다 해서 그것 만으로는 劣等感이라고 하는 情緒作用이 나타나지 않는다. 個人에게 劣等感이 發生하고 作用하는 것은 劣性이 客觀的 現實로 意識되고, 그것이 다시 他人이나 外部事物이나 狀況에 比較되어 自身の 客觀的 現實(이라고 느껴지는 要因들)이 그것들 보다 量的으로 質적으로 不足하고, 弱하고, 低劣하고, 卑賤하게 느껴질 때이다.

이러한, 他와의 比較에서 發生하는 自身에 對한 스스로의 卑下感, 無力感, 輕蔑感 등의 感情이 劣等感인 것이다. 이렇게 볼때, 劣等感이라고 하는 特殊 感情은 本質적으로 單獨者로서의 個人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어디까지나 他人들과의 社會的 關係에서 作用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意味에서 劣等感은 社會的 產物이라 할 수 있다.

個人에게 劣等感이 發生, 作用하면 그에게는 緊張(tension)이 생긴다. 緊張은 基本

의 要求가 充足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人間의 行動力學에 있어서의 生理的, 心理的 狀態이다. 그러면 基本的 要求中 어떠한 要求가 充足되지 않을 때 個體에게 劣等感과 이로 인한 緊張을 일으키는가? 바꾸어 말하면, 劣等感으로 인한 緊張이 생겼을 때 이의 解消를 爲해 充足되지 않으면 안될 基本的 要求는 어떠한 것인가? 또 劣等感과 이로 인한 緊張을 豫防하고, 或 이들이 發生했을 때 劣等感を 克服하여 緊張을 解消하기 爲해서는 어떠한 要求를 充足시켜 주어야 하는가?

다른 境遇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充足되지 않을 때 劣等感を 일으켜 緊張狀態을 造成케 하는 要求는 生理的 要求와 自我的 要求, 社會的 要求 등 健全한 生을 爲해 充足되지 않으면 안될 人間의 基本的 要求의 全部이다. 그런데 生理的 要求에 있어서는 그것이 充足되지 않았을 때 生理的인 緊張을 直接 일으키는 것과는 달리, 劣等感이라고 하는 心理作用을 直接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例컨데, 굶주릴 때 食物 攝取가 안되었다 해서 그것만으로는 劣等感은 나타나지 않는다. 食物 攝取가 안되어 心, 身의 機能이 無力해지고(緊張狀態), 그로 인해 自己가 學業, 運動競技, 社交活動 등 精神的, 身體的 社會的 力量面에서 他보다 低劣한 것으로 自覺될 때 비로소 劣等感과 이로 인한 心理的 緊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때 個人에게는 굶주림으로 인한 生理的 緊張에 이러한 心理的 緊張까지 加重됨으로써 全人으로서 겪는 괴로움(緊張)의 強度가 더욱 增大하게 된다.

이와같이 生理的 要求의 不充足으로 인한 劣等感 發生은 아주 間接的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는 對照的으로, 探求의 要求, 成就의 要求, 獨立의 要求 등의 自我的 要求(ego needs)나 愛情의 要求, 所屬의 要求, 社會的 承認의 要求 등의 社會的 要求의 境遇에 있어서는 그것이 充足되지 않을 때엔 劣等感은 個人에게 直接的으로 發生하고 作用하며, 그 強度 또한 前者의 경우보다 더 크다. 假令, 理想的 自我와 現實的 自我와의 乖離에서 오는 劣等感(그에서 오는 緊張)의 境遇를 生覺해 보자. 現在의 自我的 모습이나 地位가 宜當 있기를 바라는 自我像(外形的, 社會, 經濟地位의 期待—要求水準)과 부합치 않고, 그것이 他人과 比較하여 그 보다 低劣하고 卑賤하게 느껴질 때 劣等感은 그 個人에게 直接, 強하게 일어나고 이로 인한 緊張도 또한甚하다. 成就의 要求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自我가 意圖하는 일이 成就되지 않을 때 (그것이 自身과 比較關係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成就되었는데도) 劣等感은 作用한다. 그러나 成就의 要求와 關聯된 劣等感에 있어서는 個人의 要求水準과 成就水準의 力學的 關係에서 오는 自覺如何에 따라 劣等感を 느끼고 안 느끼는 일이나 그 強度가 決定된다. 假令, 어느 學生이 學級에서 學業成就面에서 恒常 一等을 獨占한다고 하자. 그가 要求하는 成就水準은 아주 높아 그의 成績이 갑자기 學級에서 二等 以下로 떨어졌을 경우 그가 自身보다 成績等位가 높아진 다른 學生과의 關係에서 劣等感を 느끼게 됨은 當然하다. 그런데 그에게는 一等을 했는데도 劣等感에 사로잡히는 일이 있다. 그것은 首席을 맞이하는 自

身의 平常 成績이 平均 95點 以上이었던 것이 갑자기 88點이 되었을 때다. 88點 成績으로 學級에서 首席은 맞이했지만 높은 要求水準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이 程度의 成績으로는 要求充足이 안될 것이 當然하다. 自身の 過去 成績의 95點과 比較해서 지금의 88點은 (그것이 學級에서 1等 成績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劣等感を 일으키는 強한 要因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例는 우리의 周邊에서 往往 볼 수 있는 것으로 人間 劣等感의 力學에는 이러한 事例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愛情의 要求, 所屬의 要求, 社會的 承認의 要求 등의 社會的 要求가 充足되지 않을 때에도 個人에게 劣等感이 強하게 일어나는 것은 當然하다. 劣等感은 앞서 言及했듯이 本來 社會的 產物이어서 葛藤과 競爭을 重要 特徵으로 하는 人間의 社會的 關係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例컨데 極端的으로, 父母가 없는 孤兒가 宜當 充足해야 할 愛情이라고 하는 人間의 本質的 要求를 充足받지 못하여 社會적 孤立者가 되었을 때 強要當하는 心的 狀態를 像想해 보자.

愛情의 要求, 所屬의 要求, 社會的 承認의 要求 등 個人에게 人間存在의 根據와 높은 自我價値를 保障해 주는 이들 要求들이 充足되지 않았을 때의 結果는 우리의 周邊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孤兒들의 特殊 personality와 一生동안 그들을 支配하는 그들의 思考 pattern, 行動 pattern 등에 歷歷히 나타나있는 것이다. 여러가지 種類의 社會的 要求는 그것이 充足되지 않을 때 人間에게 가장 直接的으로, 그리고 가장 強하게 劣等感이라고 하는 精神的作用을 일으키는 原因이 되는 것이므로 健全한 사람(person)으로 살아 가기 爲해서 우리는 우리의 社會生活을 보다 調和있고 圓滿하게 營爲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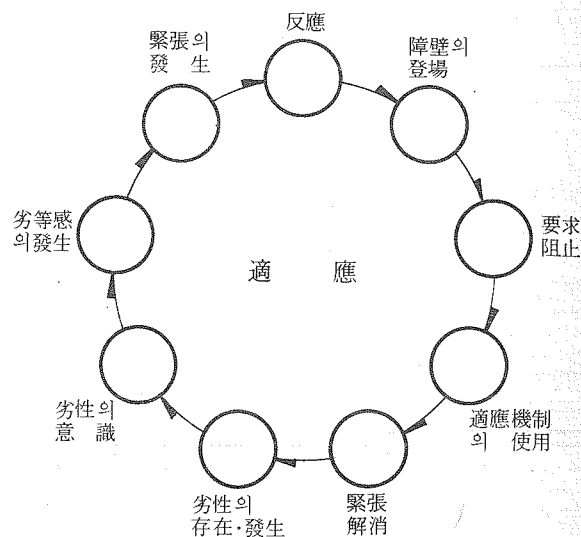
어떠한 形態의 것이든 劣等感이라고하는 情緒는 一種의 心理的 緊張임에 틀림없다. 이 緊張이 發動하면, 正常的 狀態에 있어서, 個人은 어떠한 反應을 한다. 이 反應(行動)의 結果 緊張은 早晚間 緩和되거나 解消되기도 하지만, 어떠한 障壁이 나타날 경우에는 要求充足은 阻止되어(frustration) 緊張은 그대로 남게 되고 따라서 劣等感은 사라지지 않는다.

要求阻止를 일으키는 障壁으로는 葛藤(conflict)을 包含해서 自己 自身에 關係되는 自我的 要因과 外的 要因으로서의 環境, 物理的 要因 및 社會的 要因을 들 수 있다.

緊張解消에의 反應을 이끄는 誘因이 둘 이상 있고 그들이 모두 同一한 強度로 反應(行動)을 誘引할 때 나타나는 갈등의 例는, 假令, 學業, sports, 社交 등의 諸 方面에서 모두 學級의 先頭的 位置에 있던 어느 學生이 어쩌다 學業에 低劣해 짐으로써 劣等感—緊張이 나타나자 이를 挽回하기 爲해 주어진 시간에 있어서의 勞力을 全的으로 공부에만 쏟고자 할 때 相對的으로 sports나 社交 方面에서 低劣함이 나타날 것을 意識하여 이리도 저리도 못하는 것과 같은 狀況에서 볼 수 있다. 劣等感(緊張) 解消를 爲한 反應에 frustration을 일으키는 自我的 要因으로는 自身の 身, 心 諸 方面에 있어서의 客觀的 狀態나 機能 및 社會, 經濟的 地位 등의 限界性을 들 수 있고; 外的,

環境, 物理, 社會的 要因으로는 自我的 要因의 限界性을 가지고는 到底히 克服될 수 없는 外的 要因의 客觀的 現實을 들 수 있다. 다른 女子 보다 外貌에 있어서 甚한 劣等感을 지닌 어느 女性이 이를 解消하기 爲해 아무리 몸치장을 하고 심지어 成形手術까지 받아 보았지만 自身の 타고난 外貌의 限界性으로 因해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나, 自轉車 등을 갖지 못한 어린이가 富裕한 이웃 어린이에 對한 劣等感을 씻기 爲해 自轉車만이라도 가져 보려 하지만 家庭事情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는 境遇等은 그 좋은 例이다.

劣等感—適應의 力學



이러한 要求阻止의 狀態에 빠지게 되면 個人은 이를 挽回하거나 克服하기 爲해 다음 節에서 考察하게 될 여러 가지 形態의 反應을 繼續 進行하게 되는바 이러한 反應의 結果 그는 劣等感—緊張에서 벗어나 健全한 人(person)으로 發達하면서 現實生活을 安定되고 調和롭고 圓滿하게 營爲하여 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力學적 過程을 適應이라 한다. 人間의 生은 事實上 이러한 適應의 循環過程이라 할 수 있다. 右表는 이와 같은 劣等感—適應의 力學的 過程을 圖示한 것이다.

III-4. 劣等感의 反應樣式과 適應

劣等感으로 緊張이 생기고 이를 解消하기 爲한 試圖가 障壁에 부딪쳐 要求阻止에 빠졌을 때 個人의 反應은 어떠한 樣式으로 나타나는가? 一般의인 緊張과 關聯된 要求阻止狀態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이 때의 反應은 大概, 積極的인 形態로 나타나거나 消極的인 形態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肯定的 形態나 否定的 形態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때 이 反應들은 그 特徵에 따라 劣等感—緊張—要求阻止의 原因이나 責任을 全적으로 自身에게 돌려 스스로 苦痛을 當하는 自虐(內罰)的 反應의 形態를 取하기도 하고, 그 原因, 責任을 外部에 돌려 그에게 非難, 抵抗, 攻擊 等の 言動을 가하는 他虐(外罰)적 反應의 形態를 取하기도 하는가 하면, 自身이나 他人에게 그 原因이나 責任을 돌려 스스로 苦痛을 當하거나 加하거나 하는 일 없이 이를 度外視하거나 隱蔽하는 非虐(罰)的 反應의 形態를 取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劣等感이 發生하는 原因이나 責任, 그리고 이를 돌려 自, 他的 客觀的 現實을 直視하고 이를 높은 知性과 信仰 等を 바탕으로 한 雅量과 忍耐를 가지고 合理的으로, 그리고 超然스럽게 克服할 뿐 아니라,

나아가, 이를 自我伸張, 自我成就의 契機로 삼는 次元 높은 反應도 있다.

먼저, 便宜上, 消極的 反應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부터 살펴보자.

消極的 反應은 위에서 論及한 非虐(罰)的 反應과 함께 逃避(escape)의 適應機制로 나타는바 이는 劣等感으로 因한 frustration의 狀態나 장면에서 멀리 함으로써 一時的 이나마 緊張을 모면해 보려는 反應이다. 이 逃避機制에 依한 反應形式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孤立(insulation)은 自身の 劣性要因을 補充, 強化, 改善하여 劣等感—緊張—要求阻止를 만회, 극복, 해소하려 하지 않고 對人 接觸이나 社會的 關係에서 떠나 隱遁(withdraw)하여 혼자 있음으로써 이에서 벗어나려는 機制요, 拒否(negativism)는 孤立과도, 그리고 攻擊 機制와도 비슷한 反應으로서, 自身에게 劣等感을 일으키는 比較 對象인 外部(他人)와의 接觸을 斷切할 뿐 아니라 外部에서 加해 오는 要求나, 指示, 制約 等を 無視하고 否定하여 自身만의 世界에서 緊張을 풀어보려는 機制이며, 退行(regression)은 어렸을 때의 幼稚한 言動을 함으로써 劣等感—緊張—要求阻止에서 벗어나려는 反應機制이다. 이들 適應機制들은 모두 非虐(罰)的 特徵을 띤 反應들이며, 한편, 孤立, 退行 機制가 消極的 反應임에 反해, 拒否 機制는 도피기제 중에서도 多少 積極的이요 他虐的 特徵이 加味된 反應이다. 抑制(repression)과 白日夢(day dreaming)도 消極的인 反應으로서 前者는 自虐的 特徵이 있는 反應인 것과 對照的으로, 後者는 非虐的 特徵을 가진 適應機制이다. 兩者는 모두 抑壓된 性的 衝動성과 꿈에 重要한 意味를 賦與하는 Freud를 中心한 精神分析學者들의 理論과 깊은 關係가 있는 概念 이라는 것이 또한 그 特徵이다(門司三省, Ibid., p. 227~228). 抑壓機制는 劣等感으로 因한 frustration의 緊張狀態를 無條件 抑壓 함으로써 安定과 平溫을 되찾으려는 反應 인바, 이러한 抑壓反應이 빈번하거나 오래 持續될 때에는 個人에게 神經症的 障害도 나타나 그의 personality는 不安을 띠게 된다. 白日夢은 文字 그대로 劣等感을 일으킨 自身과 周邊事情의 客觀的 現實을 全혀 度外視 한채 空虛하고 非現實的인 妄像에 사로 잡혀 緊張을 解消해 보려는 適應機制이다. 끝으로, 忘却과 沒頭(forgetting and absorption)機制는 白日夢과 類似한 忘却을 통해서 自身の 意識에서 客觀的 劣等現實을 사라지게 하고, 그 代身, 다른 일에 熱中(沒頭)함으로써 緊張을 解消하려는 反應 樣式이다.

이들 모든 逃避性反應—適應機制들의 共通된 特性은 이들을 통해서 緊張은 一時的 으로 解消되(는듯 하)지만 如前히 意識속에 남아 있거나 축적되어 언젠가는 그것이 不時에 나타나 個人에게 더 큰 不安과 苦痛을 준다고 하는 데 있다.

自己防禦機制(self-defense mechanism)는 逃避機制와는 달리 問題事態에 對해 그 反應이 積極的 이라는 點이 特徵이다. 이 反應은 劣等感—緊張 解消에의 要求阻止狀 況에서 逃避할 뿐 아니라, 이에서 自身을 지켜 保存하려는 積極的인 試圖가 깃 들어 있는 機制로서 投射(projection)를 除外하고는 自虐(罰)的 反應이나 他虐(外罰)的 反

應이나, 그리고 嚴格한 意味에서, 非虐(罰)的 反應의 어느 範疇로도 分類될 수 없는 性質의 適應機制이다.

먼저, 代償(substitution)은 frustration을 일으킨 劣等要因이 이의 해소를 爲한 反應 — 行動에도 不拘하고 그대로 남아 緊張이 如前하거나 高潮될 경우 本來의 劣等要因을 度外視하고 보다 손쉬운 다른 要因을 이에 代置하여 그의 克服을 通해서 緊張을 해소하려는 適應機制이다. 假令, 子女가 없어 劣等感에 사로잡힌 夫婦가 얻을 수 없는 子女 代身に 새나 개와 같은 愛玩動物을 飼育하여 거기에 情을 붙이거나, 異性接觸이 없이 異性에의 接觸要求를 充足하고 있는 親舊에게 劣等感을 느끼고 있는 寄宿舍生이 얻을 수 없는 異性 代身 同性의 寄宿舍 同僚를 對象으로 해서 愛情을 나눔으로써 frustration을 모면하는 等은 이의 좋은 例이다. 適應機制에 呼訴함으로써 劣等感에서 벗어나려는 反應들 중 補償(compensation)은 아마도 가장 積極적이고 肯定的인 것임에 틀림 없다. 補償은 Adler에 의해 最初로 心理學의 重要 概念으로 使用된 것인바, (Adler, 1930) 그는 이 機制를 個人에게 劣等感을 克服하고 優越性を 實現케 해 주는 가장 實効있는 反應으로 보았다 (Hall & Lindzey, 1978, p. 162~163참조). 어느 한 局面의 劣性에 對한 意識에서 비롯되는 劣等感으로 因한 要求阻止에 빠져 있는 個人으로 하여금 이를 挽回, 克服하고 남 못지 않게 優越해 짐으로써 쌓였던 緊張을 解消케 해 주는 것은, Adler에 의하면, 그 무엇보다도 補償 反應이다. 補償機制는 어느 한 局面의 劣性要因에 對한 意識에서 오는 劣等感에 사로잡혀 있는 個人이 남 보다 優越한 自身の 다른 局面이나 그 機能을 誇示, 發揮함으로써 要求阻止에서 벗어나 緊張을 解消할 뿐만 아니라, 自身の 失墜된 威信을 挽回, 確立하여 價値를 認定받으려는 人間 固有의 行動인 것이다. 例컨데, 學業成績이 不良하여 劣等感에 사로잡힌 學生은 自身の 卓越한 運動機能을 誇示, 發揮함으로써 學業成績 不振으로 失墜된 自身の 威信을 만회하고 세워 他人들(社會)로 부터 自身の 存在 價値나 能力을 認定받는다. Adler는 幼少期에 甚한 말 더듬이었다가 刻苦 勉勵끝에 世紀的인 雄辯家가 된 Demosthenes, 本來 虛弱했다가 執念의 奮闘끝에 大統領이 된 Roosevelt, 性的 無能者로서 稀代の 獨裁者가 된 Hitler, 矮小한 體軀의 所持者로서 未曾有의 征服者가 된 Napoleon 등을 人間의 補償本能이 이루어 놓은 偉大한 結實로 例示하고 있다(Ibid., pp. 163, 165). 注意獲得(attention getting)機制는 劣等感에 젖어 있는 個人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속에서 怪聲을 發하거나 異常한 行動을 하여 自身을 들어 냄으로써 그의 存在價値를 認定받아 安定과 平溫을 얻으려는 反應이고, 同一視(identification)는 傑出하고 尊敬받는 사람이나 集團과 劣等한 自身 또는 그가 屬해 있는 集團사이에 類似性, 同一性인 것 처럼 말하거나 想像함으로써 自身の 地位나 價値를 높이려는 反應이다. 合理化(rationalization)와 投射(projection)는 自身の 缺陷이나 失敗 等の 原因, 責任 等を 迴避하고 轉嫁하려고 하는 試圖라는데 共通點이 있다. 投射는 要求阻止 狀況으로부터 自身の 責任을 謀免하고 正當化하기 爲해 提示하는 口實을 통한 合理化와는 달리, 自

身을 正當化하기 爲해 自身の 缺陷, 失敗 等の 原因과 責任을 다른 사람이나 外部要因에 돌려 그를 책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攻擊까지) 한다는 點에서 他虐(外罰)性, 攻擊性 反應의 特徵을 지니고 있다. 昇華(sublimation)도 補償과 함께 積極적이고 肯定的인 特性을 지니고 있는 자기 防禦 適應機制이다. 이는 어느 한 局面의 劣性으로 생긴 劣等感을 지닌 個人이 公的으로 認定할 만한 일에 盡力하여 거기에서 自身の 優越性を 實現하고 誇示함으로써 緊張을 解消하고 마음의 安定과 平衡을 회복하면서 自身の 威信과 價値를 높이려는 바람직한 反應이다. 兇惡한 犯罪者로서 世人의 憎惡와 嘲弄의 對象이었던 Sony Liston이 Boxing에 執念하여 마침내 重量級을 휩쓸고 이 方面에서 世界の 王者가 되어 富와 名聲을 누렸던 逸話는 이 昇華反應의 좋은 例이다.

逃避機制와 自己防禦機制는 大部分 他虐의 一外罰의 作用이 없다는 것이 共通된 特徵이다. 그러나 攻擊機制는 이들과는 性格이 다르다. 攻擊機制는 우선, 積極적이긴 하나, 그것이 他虐의이라는 點에서 個人이 이러한 形式의 反應을 取하지 않도록 留意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機制에 呼訴하는 個人은 劣等感 — 緊張 — 要求阻止의 原因이나 責任이 어디에 있는가에 關係없이 이들을 無條件 他人이나 外部 對象에 돌려 그에게 辱說, 詰難, 暴行 等の 反應을 한다. 이러한 適應機制가 發動할 경우 緊張으로 因한 不安은 本人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外部 對象에게 까지 擴大되어 個人과 社會가 不幸스러워짐은 말할 必要도 없다. 이는 個人에게 不適應을 일으켜 그의 personality나 生에 極히 否定的 影響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劣等感으로 因한 緊張이 解消되지 않아 frustration에 빠졌을 때 마땅히 있어야 할 反應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이러한 frustration을 豫防하고, 또 이것이 엄습해 올 때 이로 因한 不安과 不幸을 緩和하고 解消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反應樣式은 무엇인가? 우리는 逆境에 直面했을 때 衝動的이고 不合理的 諸 適應機制에 呼訴하지 않고 높은 知性과 信仰과 人格의 힘으로 自制하고 忍耐하여 그 原因과 責任의 실상과 所在를 밝히 診斷하고 不時에 엄습해 오는 人間 固有의 普遍 必然的인 이 疾患을 效果的으로 治癒하여 健康한 사람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IV. 健全한 生을 爲하여 — 結語

社會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人間은 他人과 어울리는 過程에서 他人보다 弱하고 不足하고 低劣한 自身을 發見하게 된다. 그는 이를 謀免하고 克服하여 他人보다 優越해 지려는 欲望이 作用함에 따라 不斷히 努力하고 奮闘한다. 사람은 누구나 自身の 劣性을 自覺하므로 劣等感의 奴隸가 되어 사뭇치는 葛藤과 緊張속에서 挫折을 겪기도 하면서 몸부림 치는 가운데 이러한 逆境에서 벗어나 他人과의 어울림에서 成功的으로 適應하여 健全한 사람으로 살아 가는가 하면, 그러다가도 不時에 엄습해 오는 달갑지 않은

心理狀態에 또 다시 휩쓸려 安定과 平衡을 잃고 헤메게 된다. 이러한 人間 現實의 循環 過程속에서 人間에게 固有하고 普遍 必然의인 劣等感이라고 하는 情緒的 抑壓에서 오는 緊張을 克服하고 해소하는 것은 健全한 사람됨의 形成, 發達과 바람직한 삶의 營爲를 爲해 반듯이 이룩해야 할 課題이다.

個人的 心, 身, 諸 局面의 先天的, 後天的 劣性에 對한 自覺에서 비롯되는 劣等感에 슬기롭게 對應하여 健全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人間 固有의 普遍 必然의 感情이라 해서 이 劣等感(을 일으키는 要因들)을 全적으로 當然視하고 이에 無關心하거나 消極적으로, 그리고, 否定的으로 事後 對應만 하는 것은 人間의 바람직한 스러운 姿勢라 할 수 없다. 우리의 劣等 情緒의 根源이 되는 生得的 劣性은 이를 嚴然한 現實로 直視하고, 이를 相殺하고 補償할 力量을 培養하는 것이 緊要하다. 그러나 劣等感은 大部分 生得的 要因보다도 人間의 社會的, 經驗的 關係 一 狀況에서 비롯되는 後天的 要因의 劣性에 基因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러한 劣性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도록 그리고, 增大되지 않도록 紀綱있는 不斷한 鍊鍛을 통해서 우리의 客觀的 資質과 力量을 改善, 增進하는데 盡力해야 할 것이다.

劣等感이 問題되는 生의 樣態는 比較와 競爭이다. 自身이 他人과 比較되는 競爭의 狀況이 造成될 때 發動하는 것이 劣等感이다. 競爭의 狀況이 支配하는 社會共同體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個人的, 아니, 知性人, 信仰人의 基本的 生活規範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謙讓의 美德이다. 그러나 自身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謙虛한 사랑의 原理에 따라 살아간다 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面을 無能하고 低劣한 狀態로 放置한 가운데 無條件 自身을 卑下하면서까지 他人을 높일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自身의 身體的, 精神的, 社會, 經濟的인 資質이나 力量, 地位에 劣性이 생겨 이로 인해 他人에게 屈辱 當하도록 나태하거나 無力해서는 안된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先天的, 後天的 劣性을 克服하고 改善하여 보다 나은 自我를 實現하려는 爭鬪에서 敗北者가 되어서도 안된다. 우리는 自身과 周邊事情 等を 直視하고 이에 슬기롭게 對應함으로써 劣等人間이 되어 適者 生存의 生의 現實에서 落伍者가 되는 일이 없도록 自我開發과 伸張에 힘써야 한다.

아무리 誠實하고 進取的인 生을 營爲하는 사람에게도 客觀的, 그리고, 主觀的(으로 느끼는) 劣性은 必然적으로 있거나 나타나기 마련이고, 이로 인한 劣等感을 避할 수 없다. 이에서 비롯되는 緊張과 葛藤의 挫折(frustration)에 빠짐에 따라 우리는 多樣스러운 反應을 하게 된다. 이리하여 우리는 早晚間, 逆境의 늪에서 헤어나와 安定과 均衡이 維持된 福된 生을 되찾기도 하고, 때로는 더욱 甚한 不幸의 深淵에 陷沒하기도 한다.

바람직한 適應은 우리를 바람직한 사람으로 形成, 發達시켜 주고 우리에게 바람직한 生의 길을 열어 준다. 願치 않는 劣等感으로 말미암아 깊은 挫折의 不幸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여기에서 헤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自我價値를 높여주는 것은

높은 知性과 信仰 人格에 바탕을 둔 雅量과 忍耐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適應이요, 그리고, 自我 開拓과 自我伸張을 爲해 不斷히 盡力하는 우리의 誠實하고도 積極的인 生인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健全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原動力인 것이다.

參 考 文 獻

- 權在源, 1977, 教育心理學, 大邱, 螢雪出版社
 金誠一 外 4 人, 1972, 活用教育大事典, 서울, 信進出版社
 金貞圭, 孫直銖, 1981, 教育心理學, 서울, 教育出版社
 閔榮順, 1973, 教育心理學, 서울, 教育出版社
 小見山榮一, 1969, 教育心理學, 東京, 金子書房
 李崇寧, 1981, 國語大辭典, 서울, 民衆書館
 門司三省, 1971, 教育心理學, 東京, 法政大學出版部
 千輪浩, 1969, 心理學, 東京, 誠信書房
 Bridges, K. M. B., 1932, "Emotional Development in Early Infancy", *Child Development*, London,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Calhorn, F. F. and others, 1975, *Developmental Psychology Today*, New York, CRM/ Random House
 Cole, L., 1966, *Psychology of Adolescenc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Darwin, C. B., 1955, *The Expression of Emotions in Man and Animals*,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Dennis, W. and Dennis, M. G., 1951, "Development under Controlled Conditions," in *Readings in Child Psychology*, New York, Prentice-Hall, Inc.
 Dicaprio, N. S., 1974, *Personality Theories*, Philadelphia, W. B. Saunders Company
 Dushkin, D. A., 1970, *Psychology Today*, California, Del Mar CRM Books
 Garrison, K. C., 1965, *Psychology of Adolescence*, New Jersey, Prentice-Hall, Inc.
 Gates, A. I., 1930, *Psychology for Students of Educa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Goodenough, F. L., 1934,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York, D. Appleton-Century Company, Inc.
 Hall, C. S. and Lindzey, G., 1978, *Theories of Personality*,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Hilgard, E. R., 1952, *Introduction to Psychology*, Harcourt, Brace & World, Inc.

Hurlock, E. B., 1953,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Johnson, R. C. and Medinnus, G. R., 1969, *Child Psychology: Behavior and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Lazarus, R. S., 1969, *Patterns of Adjustment and Human Effectiveness*, New York, Magraw-Hill Book Company

Rosenzweig, S., *An Outline of Frustration Theory in Personality and Behavior Disorders*, Edj. McV. Hunt

Watson, J. B., 1919, *Psychology from the Standpoint of a Behaviorist*, Philadelphia, Lippicott

Woodworth, R. S., 1946, *Psychology*,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Bultmann神學에 있어서의 實存思想

— Heidegger에서 Bultmann으로 —

金 聖 麟*

◇ 목 차 ◇

序 論

I. Heidegger와 Bultmann

II. Bultmann의 歷史觀

III. Bultmann의 實存論的 解釋學

結 論

序 論

Bultmann神學이 Heidegger哲學과의 깊은 聯關性을 갖으면서 形成된 것은 그의 神學이 Heidegger哲學의 神學的 表現에 지나지 않는다는 批評에서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神學이란 어디까지나 信仰內容의 解釋이었다. Barth와 마찬가지로 그는 神學內容을 기독교의 啓示에서 찾으려 했다. 그러나 Barth와는 달리 信仰하는 主體의 實存論的 解釋이 그의 神學의 主課題였으며 그 前提를 準備한 思想은 Kierkegaard의 實存哲學이었고 그 方法은 Heidegger의 存在論的 解釋學이었다.

그에게 있어서도 聖經은 人間實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啓示」였다. 그러나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人間實存에 있어서 어떤 意義를 갖이는가의 것이었다.

Bultmann에 의하면 實存哲學의 人間理解와 기독교적 人間理解 사이에는 共通點이 있다. 예를 들면 헬라적 世界觀에서는 世界와 人間을 全體의인 秩序의 한 分枝로서 客觀的으로 把握이 되는데 대하여 히브리적—기독교적 人間觀에서는 罪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存在로 理解된다.

따라서 人間의 하나님에 대한 態度는 傍觀者的인 것이 아니고 主體的으로 나와 당신 의 만남이 된다. 여기서는 헬라적 自然優位에 대한 기독교적 歷史優位의 사상이 나타난다. 그의 著書인 「新敎神學」(Theologie des Neuen Testament)에서 바울과 요한의 神學을 實存論的인 立場에서 解釋하고 있다. 즉 「世上」「몸」「마음」「靈」 등의 概念을

* 敎授, 哲學